

“토종 종패 개발, 어업소득 올리고 싶어요”

“중국산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은 토종 종패를 개발해 어업 소득을 높이고 싶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안포마을에서 양식 조개류 종패를 생산하는 김상철(49) 한국해양 대표를 소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조개 양식을 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김 대표는 여수에서 중·고교를 졸업하고 군산대에서 양식학을 공부했다.

제대 이후에는 전남대에서 새조개 인공 종패생산 관련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종패 전문가의 길을 들어선 셈이다.

박사가 된 김 대표는 2000년 초 고향인 안포마을로 내려왔다.

인공 종패에 대해 불모지나 다름없던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공양식장을 만들었다.

자연산 조개류는 생산량이 불규칙해

10년 연구 식물성 플랑크톤 개발...인공 종패 생산

■박사 출신 어업인 김 상 철 한국해양대표

계획 생산이 어려워 어민들의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선 인공 종패 생산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바다에 나가면 자연산 피조개나 새조개, 바지락 등을 쉽게 잡을 수 있는 만큼 돈을 주고 구입하는 종패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수온, 바람 등 각종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 종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0여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종패 양식의 핵심이자 먹이인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 생산 방법을 찾아냈다.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고 미세한 진동

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종묘배양장도 만들었다.

식물성 플랑크톤 연구와 신품종 개발을 담당하는 미세조류연구소도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중국산 종패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이다. 중국산 종패는 생존율은 낮지만 가격이 토종 종패의 절반 이하다.

2년 전부터는 한국해양수산산업진흥원 중양연합회 기술혁신위원장을 맡아 양식 기술 연구를 하고 있는 김 대표는 지난해는 연매출 1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양식 첫해인 2001년 2,000만원 소득을 냈던 것과 비교하면 50배 가량 늘어



난 셈이다.

김 대표는 “조개류 양식은 3년 이상 숙련된 기술이 필요로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우수한 품질의 신품종 개발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북부경찰서 ‘광주교대 화장실 불법카메라 합동 점검’

광주북부경찰서는 지난 8일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전문 탐지장비 등을 이용해 교내 화장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 광주지부 합동결혼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광역시지부(지부장 김점수)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국가유공자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간호학과 RCY동아리 ‘사랑의 헌혈’

동강대 간호학과 RCY동아리는 최근 교내 교수연구동과 인문사회관 등 2곳에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함께하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북구, 상반기 정년퇴임식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윤)는 8일 오전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퇴직공무원 부부와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배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기 위해 2018년도 상반기 정년퇴임식을 개최했다.



노인건강타운 개원 9주년 기념행사

밴드공연 등 다채...치매·우울 홍보부스도 마련

광주복지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개원 9주년을 맞아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건강타운 야외광장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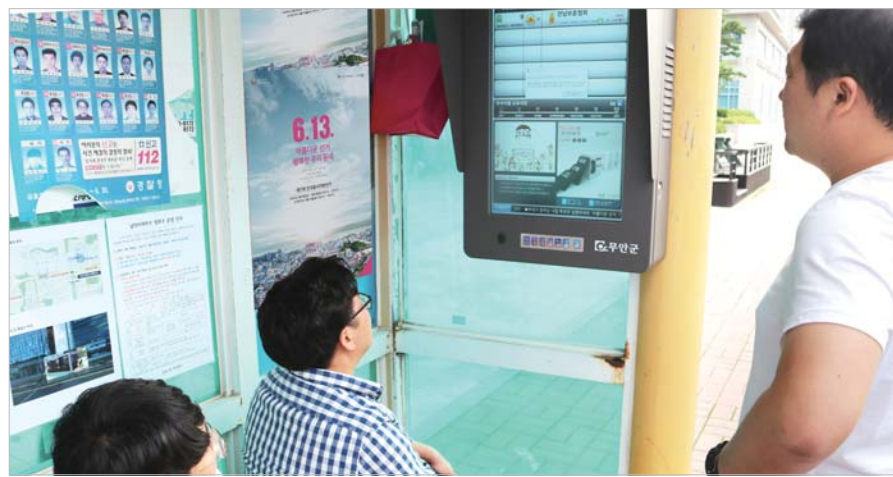
이번 기념행사에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 어르신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칭찬스타, 6월 생신잔치가 동시에 진행됐다.

또 축하행사로 인근지역 노대송화마을 주민협의체 밴드공연, 시립장애인복지관 여성장애인합창단이 공연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밝은광주안과 무료검진, 광주시니어클럽협회 일일주막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함께 복지제도 알리기, 치매·우울 관련 홍보부스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했다는 평가다.

또 개원 기념행사에는 이흥의 전 원장을 비롯해 김미란 시립장애인복지관장, 이상태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지역기관장들이 참석, 건강타운 9주년을 축하했다.

/강성수 기자



전남선관위, 생활밀착 선거홍보 ‘눈길’

BIS·아파트 미디어보드 활용 정보 제공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6·13 지방선거 각종 선거정보와 투표 참여유기 조성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생활밀착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도내 15개 시·군 시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800여대의 광역 BIS기기 모니터 화면을 통해 정책선거 등 각종 선거정보와 투표참여 영상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이 같은 정보는 광역BIS 기기별로 매일 200회 이상 반복

표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또 목포·여수·순천·광양지역 150여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미디어보드를 통해 매일 150회 이상 선거정보를 반복 제공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BIS와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를 이용한 생활밀착 홍보활동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김재무, ‘정현복 후보 허위사실 유포’ 검찰 고발

김재무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후보 선거대책위는 지난 9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무소속 정현복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대책위는 “정 후보는 광양시 전체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통해 ‘시 예산 1조원 달성’과 관련해 예산증가율을 과장하고, 부채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정 후보가 시 예산이



2014년 6월말 5,168억원에서 2018년 1조 199억원으로 무려 93.86%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라며

“2014년 예산은 기금을 포함하지 않았고 2018년 예산은 기금 126억원을 포함해 산출했다”고 말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신우철 “현명한 유권자, 완도발전 견인”

신우철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후보는 지난 8일 완도군민회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신 후보는 이날 투표를 마친 뒤 “이번 지방선거는 완도군의 중대한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현명한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능력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완도군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수산업 기반의 농·축산업 동반 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전



망과 문제인정 부 100대 국정 과제에 선정된 해양헬스케어 산업 선도, 2021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개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 중이다.

/완도=최규욱 기자

이충식 ‘장흥 맞춤형 도시재생’ 공약

이충식 무소속 전남도의원 후보(장흥1)는 10일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흥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낡고 쇠퇴한 도심을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으로 준비를 잘 하면 장흥에 수백억원의 막대한 예산



이 배정될 수 있다”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방법의 도시재생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지원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민의 행복만족도를 높여 장흥을 전남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가장 성공한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권세도, ‘여수형 프로젝트학습’ 도입

권세도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학년제 도입에 대비해 지역실정에 맞는 ‘여수형 프로젝트학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중학교 때부터 진학과 취업 등 장래와 진로, 직업체험을 연계한 여수형 교육개발과 보급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고교생의 맞춤형 진로와 적성 컨설팅 등을 추진하겠다”며 “행복



교육지원센터에는 입시전문가를 상주시켜 진학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수시 대입컨설팅지원단을 구성해 일선 학교에 수업분석실을 신설하고 교과 중심 진로프로그램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여수=곽재영 기자

권오봉 “여수시민중심 3·3·3 비전 이루겠다”

권오봉 무소속 여수시장 후보가 ‘시민중심 3·3·3 프로젝트’ 공약을 제다짐했다.

권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경제, 복지·교육·환경,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혁신을 추가로 보완하겠다”며 “국내 3대 휴양관광도시 진입, 시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달성, 정주인구 30만 회복을 위한 정책과 공약들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행정은 투명하게,



집행은 공정하게” “일자리는 넉넉하게 경제는 튼튼하게” “북지는 꼼꼼하게 교육은 확실하게” “여수를 품격있게 시민이 행복하게” 라는 서브 슬로건으로 시민의 결의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송재향 “학교밖 청소년 기술학교 설립”

송재향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라선거구)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밖에 나가있는 300여명의 청소년을 위한 ‘기술학교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무료급식소를 포함한 노인복지관 건립 ▲원도심 대중 주차장 건립 ▲원도심 주택가 쓰레기 분리수거대 설치 ▲학교밖 청소년들의 기술학교 건립 등을 내세



웠다. 송 후보는 지난 2006년 선거를 통해 당선돼 여수시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재여고흥군향우회 부회장,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재판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수=곽재영 기자